

C# -CAHPTER3-

SOUL SEEK



목차

- 1. Delegate & Event
- 2. 람다식
- 3. 가비지 컬렉션(GC)



Delegate

- Callback을 만들기 위한 형식 메소드에 의한 참조
- 메소드를 대신해서 호출하는 역활을 한다.특정 메소드를 처리할 때 그 메소드를 직접 호출해서 실행시켜야 했지만 Delegate를 사용하면 그 메소드를 대신하여 호출할 수 있다.

```
delegate int myDelegate(int a, int b);
class Delegate
{
    //사용할 함수들
    public static int plus(int a, int b)
    {
        return a + b;
    }
    public static int minus(int a, int b)
    {
        return a - b;
    }
```

단지 선언하고 호출할 때의 모양만 보았다 이렇게 쓸려고만 했으면 쓸 필요가 없다₌ delegate를 쓰는 진짜 목표는 콜백 메서드의 역할인 것이다

```
static void Main(string[] args)
   ll기본 형태
   //delegate 변수 선언
    myDelegate caculate;
   //함수를 delegate에 선언
    caculate = new myDelegate(plus);
    int sum = caculate(11, 22);
    Console.WriteLine("11 + 22 = {0}", sum);
    //함수를 delegate에 선언
    caculate = new myDelegate(minus);
    Console.WriteLine("22 - 11 = {0}",
caculate(22, 11));
```

```
//Callback 메서드
myDelegate Plus = new myDelegate(plus);
myDelegate Minus = new myDelegate(minus);
myDelegate Multiply = new myDelegate(multiply);

Calculator(11, 22, Plus);
Calculator(33, 22, Minus);
Calculator(11, 22, Multiply);
```

- 콜백함수를 만들어 쓰게 되는 형식의 delegate는 Unity에서 스크립트 형식의 참조를 하기 때문에 스크립트끼리의 통신 예를 들면 매니저 함수에서 버튼 역활을 하는 UI의 특정 값처리 결과를 받고 싶을때 해당 객체를 구하는 형식으로 해야한다.그럴경우 delegate를 활용해서 콜백으로 처리 할 수 있게 하면 될것이다.
- <T>형식의 delegate도 만들 수 있다.

delegate T myDelegate<T>(T a, T b);

myDelegate<int> Plus_int = new myDelegate<int>(plus); myDelegate<float> Plus_float = new myDelegate<float>(plus); myDelegate<double> Plus_double = new myDelegate<double>(plus);

Calculator(11, 22, Plus_int); Calculator(3.3f, 4.4f, Plus_float); Calculator(5.5, 6.6, Plus_double);

• 체인 이라고 하나의 메소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메소드를 여러개 추가해서 함께 사용할수 있는 기능이 있다. 예제를 보자 +=추가되고 -=제거되는데 추가한 순서대로 차례로 호출된다. Console.Write("첫번째"); myDelegate dele; dele = new myDelegate(func0); dele += func1; void func1() dele += func2; Console.Write("두번째"); dele(); Console.WriteLine(); void func2() dele -= func0; Console.Write("세번째"); dele -= func2; dele();

Ev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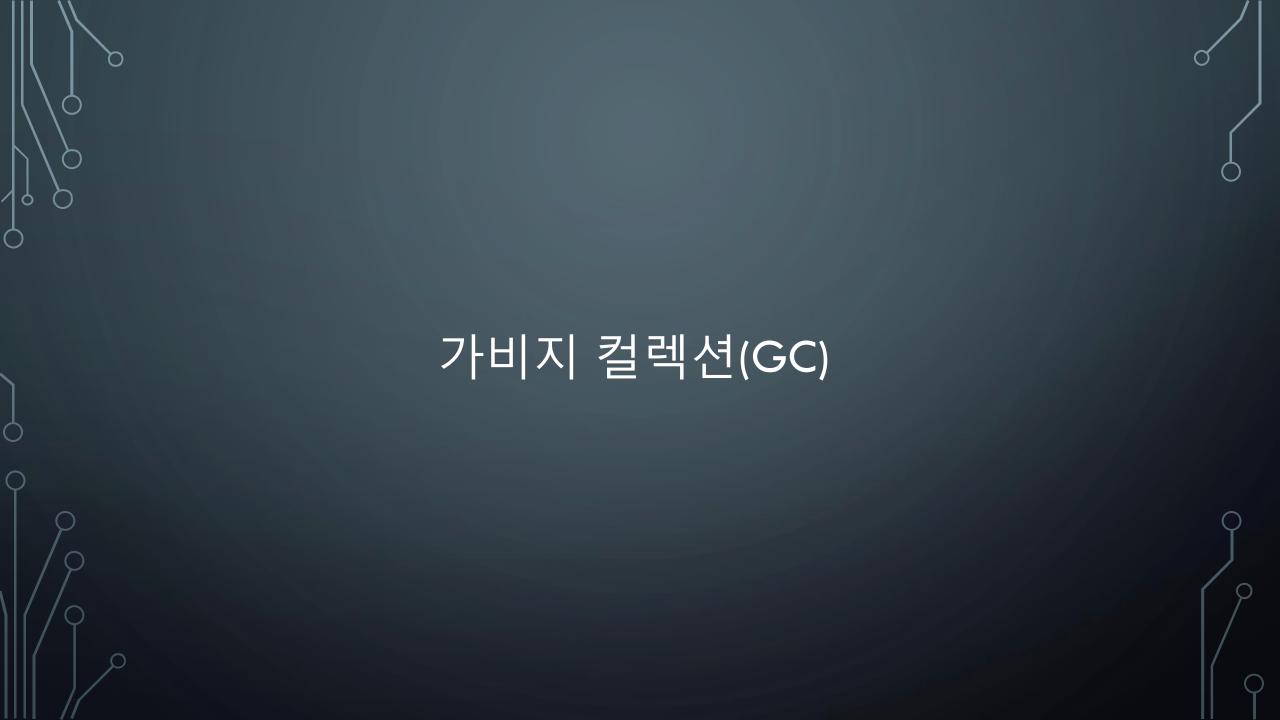
- delegate 타입을 선언해준 뒤 그대로 delegate 변수로 선언할 수 있지만 event 변수로도 선언이 가능하지만 delegate와 차이점이 있다.
- ・ delegate는 public 이나 internal을 써서 클래스 외부참조가 가능하지만 event는 public으로 선언하여도 클래스 외부에서 참조가 불가능하다₌
- delegate는 콜백 전용으로 쓰고 event는 특정클래스 안에서 상태변화에 따른 속성변화 같은 용도로 활용하자- class Event

```
//이벤트에 등록이 될 함수.
delegate void myDelegate(int a);
                                            static void EventNumber(int num)
//이벤트매니저 클래스
                                                 Console.WriteLine("{0}는 짝수", num);
class EventManager
                                            static void Main(string[] args)
    //이벤트 타입으로 선언
    public event myDelegate eventCall;
                                                 //매니저 생성
                                                 EventManager eventManager = new EventManager();
    public void NumberCheck(int num)
                                                 //이벤트에 delegate를 체인한다.
                                                 eventManger.eventCall += new
         //콜백 호출
                                                 myDelegate(EventNumber);
         if (num % 2 == 0)
              eventCall(num);
                                                 for (int i = 1; i < 10; i++)
                                                      eventManger.NumberCheck(i);
                                                 Console.ReadKey();
                                                 Console.ReadLine():
```



2. 람다식

```
C# 3.0부터 사용 - Delegate보다 간결, 문 형식
 람다식은 메소드를 단순한//곓살쉬운로 표현한 것이다.
                        myDelegate1 add = (a, b) => a + b;
int add(int i, int j)
                        myDelegate2 lamda = () => Console.WriteLine("람다식");
                        Console.WriteLine("11 + 22 = \{0\}", add(11, 22));
   return i + j;
                        lamda();
//다중라인.(delegate가 매개변수를 대입 받는 형식으로만, 값리턴 형식으로 X)
myDelegate Compare = (a, b) =>
   if (a > b)
       Console.Write("{0}보다 {1}가 크다", b, a);
   else if (a < b)
       Console.Write("{0}보다 {1}가 크다", a, b);
   else
       Console.Write("{0}, {1}는 같다", a, b);
};
Compare(11, 22);
```



ુ3. 가비지 컬렉션(GC)

• 힙 메모리를 차지하는 객체를 생성하게 되면 스택에는 힙 메모리상의 위치를 가리키는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스택에서 사라지는 순간 힙 메모리의 루트를 잃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가비지 컬렉터는 이것을 체크하고 루트가 없다고 판단하여 쓰레기로 간주해서 버리는 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를 가비지 컬렉션이라고 한다.

Level

- 힙에는 여러 가지의 객체들이 상주하고 있고 GC는 쓰레기인걸 처음부터 알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일단 모든 객체들의 공간을 루트가 없다고 인식하고 시작한다.
- 열심히 객체들의 루트를 찾는다 그러다 찾지 못한 애들은 쓰레기로 판명하고 찾은 애들과 못 찾는 애들을 따로 모아서 정리 해준 뒤 쓰레기들을 정리해서 차곡차곡 순서대로 다시 쌓아준다.
- 쌓여가는 순서대로 일정량 이상이 되면 우선순위의 레벨을 매겨준다.

LevelCheck

- 1. GC는 힙 메모리 내에서 3단계로 나누어 두고 막 생성된 객체들은 0단계에 0단계가 가득 차면 쓰레기를 수거하고 그래도 넘어가거나 쓰레기가 없다면 1단계로 넘겨주고 다시 0단계에 차곡차곡 쌓기 시작한다.
- 2. O단계도 더 이상 쌓을 수 없고 1단계도 쌓을 수 없다면 다시 정리를 시작한다 그렇게 정리하고 넘치는 것은 1단계를 2단계로 O단계를 1단계로 옮겨둡니다.
- 3. 단계별 관리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O단계에서 GC가 발생하면 O단계만 정리를 하고 1단계에서 GC가 발생하면 O단계와 1단계를 모두 정리하고 2단계는 O단계와 1단계를 모두 일어나게 한다. 2단계까지 올라가서 2단계에서의 GC가 많이 발생할수록 전체 GC를 가동하게 되는 샘이다. 그렇게 되면 심하게는 app의 구동을 멈춘 채 GC를 가동하는데 재원을 모두 활용하게 되는 참사가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GC를 일어나게 하는 방법을 최대한 방어 하는게 좋다.

3. 가비지 컬렉션(GC)

효율적인 코드 작성

- 1. 객체수가 많아질수록 메모리도 많이 차지하므로 0세대가 빨리 포화되면서 뒤로 밀릴 수가 있다.
- 2. 한번에 너무 큰 객체를 되도록이면 피해라 당연히 클래스 같은걸 내부에 너무 많은 객체들을 포함하지 말자. 부득이하게 쓸 수는 있지만 되도록이면 피하자.
- 3. 너무 복잡하거나 너무 많은 루트를 만들지 말자. 참조 관계가 복잡하고 루트가 많은 만큼 GC는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 4. 유니티에서 프로파일이라는 걸 보면서 성능상에서 CG 메모리라는걸 보면서 이렇게 쌓여가는 메모리를 확인할 수 있다. 이걸 최대한 낮추는게 앞으로의 과제라고 보면된다.